

그림 같은 산책로 '치유'를 선물하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산국립공원과 서울창포원 등 아름다운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5, 6월 도봉 나들이 장소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여기에 '아기공룡 둘리'부터 최근의 '오징어 게임'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이 도심 산책여행에 최적화된 도봉의 명소들을 추천했다.

도봉산역~천축사까지 7.5km 코스 창포원 12개 테마 생태공원 '절경' 도봉서원 등산로 계곡·숲 심신힐링 쌍문동 돌리뮤지엄·'오겜' 체험관 즐길거리 많아 가족 여행지로 제격

●요즘 가장 아름다운 창포원

걸어서 도봉구 명소를 돌아본다면 도봉산에서 출발해 창포원, 평화문화단지, 천축사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일반적이다(도봉산역→서울창포원→ 평화문화단지&평화올림터→유희경과 이매창 시비→김수영 시비&도봉서원 터→ 천축사). 약 7.5km 정도로 관람시간을 제외하면 이동에 대략 2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첫 목적지인 서울창포원은 도봉산역 2번 출구 앞에 있다. 붓꽃원, 습지원, 늪푸름원 등 12개 테마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이맘 때가 가장 아름답다. 활짝 개화한 붓꽃을 배경으로 도봉산 선인봉을 바라보는 경치가 일품이다. 노랑꽃창포, 타래붓꽃 등 붓꽃류 130여 종이 5월 내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평화문화지지는 옛 방호시설을 2017년 개조해 공개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창포원 늪푸름원 앞쪽에 있다. 평화문화지지의 명물은 평화올림터다. 동그란 원형 구조에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팬 듯이 뿔려 있는 일종의 야외음악당이다. 소리가 원형 벽에 부딪히며 반사하여 다시 들리는 반향을 이용해 음향이 증폭되도록 설계했다. 신기한 소리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여기서 도봉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17세기 초 문장가 유희경과 부안 기생으로 한시에 능했던 이매창이 주고받은 사랑의 시를 새긴 비석이 나온다. 이어 도봉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김수영 시비와 도봉서원 터가 나타난다. 서원 근처 도봉계곡에는 조선 시대 문인들이 바위에 새겨 넣은 글씨를 볼 수 있다.

마지막 목적지 천축사까지는 도봉서

원에서 등산로를 통해 가야 한다. 약 30~40분가량 계단 오르막길을 걸어야 해서 꽤 힘이 든다. 그래도 길옆으로 작은 계곡이 흐르고 숲이 우거져 산행의 맛을 더해준다. 천축사 경내로 들어서면 도봉산 3대 암봉 중 하나인 선인봉이 마치 깎은 것처럼 지붕 위로 자리해 눈길을 끈다.

●돌리뮤지엄과 오징어게임 체험관

김수영문학관, 돌리뮤지엄, 편지문화관 등 도봉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려면 우선 쌍문역으로 가야 한다. 2번 출구에서 목적지에 따라 버스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다.

김수영 문학관은 도봉06번 버스를 타면 된다. 시인의 시와 산문의 육필 원고를 전시하고 있다. 2층에는 시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 작업하던 탁자 등도 있다.

돌리뮤지엄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캐릭터 박물관이다. 만화 속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테마로 체험장을 조성했다. 인터랙션 미디어 기술과 VR 콘텐츠를 접목한 '매직 어드벤처'가 가장 인기 높다. 도봉07번 버스가 간다.

편지 문화관은 3월에 개관한 최신 시설이다. 도봉구와 인연이 있는 역사적 인물들의 글과 해외의 유명 예술인이 남긴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 도봉05번 또는 도봉06번 버스를 타면 된다.

오징어게임 체험관은 세계적 히트작인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이 살던 백운시장에 만든 공간이다. 오징어 게임의 의상을 입고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이 있다. 체험관 앞에 서면 성기훈의 동생 동생 상우(박해수 분)의 어머니 생선가게로 등장했던 '팔도견어물'이 눈에 띈다.

체험관에서 약 1~2분 거리에는 기혼과 상우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오징어 게임 참가를 이야기하던 도봉중앙교회도 있다. 이곳만은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도봉01번 버스를 타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창포원 습지원에 조성한 데크길. 돌리뮤지엄 앞의 만화 캐릭터 조형물들. 도우너, 또치, 회동이, 마이클 등 친근한 얼굴들이다. 오징어게임 체험관에 있는 포토존. 드라마 속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15



여름 수국축제가 열리는 화담숲.

곤지암리조트·화담숲 '여름 수국 축제'

내달부터 7월 초까지...100% 사전예약제 운영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와 화담숲은 6월1일부터 7월 초까지 '여름 수국 축제'를 진행한다. 4500㎡ 규모의 화담숲 테마원인 수국원을 비롯해 곤지암리조트의 시계탑 광장 주변 등에서 초여름에 만개하는 수국 100여 종 7만여 본을 만날 수 있다.

화담숲 수국원은 17개의 테마원 가운데 여름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조밀한 꽃들이 모여 한 송이 부케와 같은 큰수국, 고깔 모양의 흰색의 꽃이 피는 목수국, 커다란 다발로 풍성함을 자랑하는 미국수국, 소담하고 청초한 푸른빛의 산수국 등 다양한 수국들이 있다. 수국원을 비롯해 화담숲 원내 각종 포토존도 조성했다.

화담숲의 주요 테마원에 비치된 스탬프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별도의 비용없이 매표소에 비치된 이용안내도를 가지고 화담숲의 여름을 대표하는 테마원을 찾아 관람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름 수국 축제'는 입장인원수를 분산하여 여유롭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방문 전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한편, 곤지암리조트와 화담숲의 레스토랑은 여름시즌 한정 신메뉴를 출시한다. 곤지암리조트의 한식당 담하에서는 속초식 명태회냉면을 선보이고, 카페테리아에서는 흥겨움떡볶이를 내놓았다. 화담숲의 한옥주막에서는 메밀 검은콩국수와 간장 막국수를 판매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레일, '여행가는 달' 열차 운임 50% 할인

한국철도(코레일)는 6월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022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1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차 여행상품을 할인한다. 우선 KTX 연계 여행상품의 열차 운임을 50% 할인한다. 부산 패밀러투어, 제천 프리미엄 미식투어, 강릉동해 TV명소 플라담기, 나의 N번째 경북여행 등 총 271개다. 6월에 출발하는 관광열차도 운임을 최대 50% 할인한다.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1만 원을 할인한다. '코레일톡 토털여행서비스'에서는 제휴사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27일(금)		
서울 30/0	인천 30/0	춘천 60/20	16 25	15 20	14 24
강릉 20/0	대전 10/0	전주 0/0	17 25	15 27	15 26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4 27	16 29	18 27
창원 0/0	제주 0/0	지역	15 30	18 28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7일(금) 음력: 4월 2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관세수를 조심해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독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뱀은 지살이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고 괜찮다. 주변인의 도움이 예상된다. 열심히 움직여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끈기 가지면 이룬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많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판매, 송사 조심해야 한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